『신앙과 학문』. 29(4). 301-322.
https://doi.org/10.30806/fs.29.4.202412.301

기독교 국제주의와 윤치호의 국제인식: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를 중심으로*

Christian Internationalism and Yun, Chi-ho's International Thoughts: Focusing on the 1910 Edinburgh World Missionary Conference

김 호 수 (Hosoo Kim)**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international ideas of Yun, Chi-ho, a prominent 'international' figure in early 20th-century Korea. While previous research has primarily focused on Yun's ideology within the context of Joseon's domestic turbulence, this paper seeks to shed new light on Yun's unique complexities by framing his thoughts through the concept of internationalism. Yun's perspectives are examined through the lenses of Christian internationalism, specifically centered on ecumenicalism and Wilsonian internationalism. In particular, this study reinterprets Yun's intellectual transformation and Christian faith around the time of the 1910 Edinburgh World Missionary Conference. It also contextualizes Yun's decision to refer to the March 1st Movement as a "political influenza" and to pursue a pro-Japanese path. Christian faith underpinned Yun's international outlook, encompassing a multi-layered set of emotions and ideas shaped both by personal and external experiences. Ultimately, this study seeks to expand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ism by examining the narrative of a unique figure whose experiences were on the peripheries of major internationalist movements.

Key Words: ecumenicalism, internationalism, national self-determination, Wilsonianism, Yun, Chi-ho

* 2024년 11월 4일 접수, 12월 11일 최종수정, 12월 12일 게재확정
** 서울대학교(Seoul National University) 외교학과 박사과정,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hosoop1204@snu.ac.kr

I. 들어가며

1920년에 55살이 되었던 윤치호는 당시 조선에서 가장 국제적인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윤치호는 어린 나이에 이미 일본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스코틀랜드, 러시아, 베트남 등 대륙을 건너 많은 나라들을 다니며 다양한 사람과 삶의 형태를 목격한 상태였다. 또한 그는 미국 남부에서 가난한 노예 출신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교사로 일을 했고, 남감리교(Southern Methodist)협회의 국제선교회의에 여러 차례 초대되어 참가했으며, 러시아 황제의 대관식에도 참가하는 등 당시 다양한 문화, 인종, 종교의 문제가 교차하는 국제적 현장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다. 심지어는 청일전쟁 중 상하이에 머물 당시 윤치호는 중국 여인 마애방(馬愛芳)과 소위 '국제결혼'을 하는데, 이는 근대 한국인과 중국인이 결혼한 첫 사례로 알려져 있다.

윤치호는 조선 밖 세계, 즉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치가 굉장히 높은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조선 내부 사정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는 여러 차례 관직 생활을 했고, 을미사변(乙未事變)과 고종의 죽음을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105인 사건(百五人事件)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는 등 당시 복잡했던 대내외적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정치관을 형성해 나간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1905년 YMCA 기독 청년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후, 그는 조선 내의 기독교 청년 활동과 선교 및 교육 활동에 매진한다.

본 글은 20세기 초반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적' 인물이었던 윤치호만의 내밀한 국제인식을 살펴본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속 윤치호의 행보, 즉 근대적 문호 개방과 일제강점기 등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으며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조선인으로서 윤치호의 세계관을 분석하려던 시도가 많았다. 하지만 본 글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서구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된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운동'이라는 역사적 관점으로 윤치호를 새롭게 이해해 보고자 한다. 또한, 당시 주요 국제주의 운동의 경계에 서 있던 한 인물의 독특한 서사를 통해 국제주의에 대한 역사적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그동안 윤치호는 정치, 문학, 종교, 교육, 외교,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사적 관심을 받아온 인물이다. 그의 국제정세 이해와 국제 인식과 관련해 가장 두드러진 주목을 받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20세기 초부터 본격화된 그의 친일 행보이다. 독립협회 활동과 독립신문 발행 등 한 때는 한반도의 자율적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그가 어느새 견고한 친일적 입장에 서게 된 과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었다. 먼저, 조선 후기 윤치호의 문명 개화론에서 이미 조선의 자주성을 약화시키며 일본을 모범으로 삼는 요소들을 발견한 연구들이 있다(김경일, 2008 ; 정용화, 2001a ; 유영렬, 2004), 이는 그가 당시 서구, 일본, 청국에 대해 각기 다른 감정을 느끼며 국제정세를 파악한 방

식과도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윤치호의 친일 과정은 윤치호가 청국에는 반감을 품고 서구 문명에는 내재화된 우월의식을 느꼈으며, 결국 일본을 대안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서술로 통용된다. 각국에 대한 그의 복잡한 감정과 궁극적인 친일 사상으로의 전환은 '주변부 지식의 허위의식', '양가적 저항', '현실주의적 자조론' 등의 관점으로 이해되어 왔다(김용신, 2022 ; 류충희, 2016 ; 정용화, 2001b).

또한, 윤치호의 국제인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의 국제정세 이해와 기독교 사상의 연관성을 함께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윤치호는 조선 후기에 관직을 맡은 후 국제정세에 관해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하며, 문명 발전과 자유를 핵심 가치로 삼아 여러 계몽주의 운동에 매진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자유와 사회 개혁을 논하며 신앙적 가치를 중시했다 (류충희, 2015). 그러나 그의 신앙에는 종교적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얽혀 있었으며, 이는 그의 국제적 경험과도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윤치호는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에서 비서구 지역의 대표로 연설하며, 동양의 사상체계에도 논쟁할 수 없는 진리가 담겨 있음을 주장했다. 동시에 서구 대표들의 감상적인 신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안신, 2010). 그럼에도 윤치호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국제관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다양한 문화적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국제인식과 신앙관을 바탕으로 정세를 해석하려고 했던 인물이다. 본 글은 이러한 윤치호의 국제 인식, 신앙관, 그리고 궁극적인 친일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 '국제주의'라는 새로운 관점을 더해 윤치호의 특수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국제주의란 무엇인가? 최근 서구 국제관계사에 관한 연구는 19세기 중후반부터 시작하여 1차 대전 전후로 활발해진 '국제주의' 운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Gorman, 2012 ; Jackson et al., 2023 ; Sluga, 2013). 19세기 말부터 통신과 교통기술이 크게 발달하며, 국가 간 교류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활발해졌다. 20세기 초부터는 각 국가 간의 갈등이나 국가 간 연대가 필요한 문제들을 국가 밖에서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폭발적으로 등장했으며, '국제주의'는 이 시도를 뒷받침하는 공통적 관념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동안 국제주의는 주로 코민테른(Comintern 혹은 Third International)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권 국제운동 혹은 강대국들의 외교적 비전을 지칭하는 좁은 개념으로 이해 되어온 경향이 있다 (남궁곤, 2010 ; 심지화 외, 2017). 그러나 최근 '국제주의'라는 개념은 국가 간 연대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각종 국제단체와 기구를 설립하는 다양한 운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Holbraad, 2003). 이러한 운동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국경을 넘어선 협력을 추구하며, 서로 다른 이념과 목표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

다만 어떤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삼는지, 어떤 방식으로 국가 간 연대를 도모하는지, 혹은 무엇을 목적으로 삼는지 등에 따라 국제주의 운동의 종류가 나뉠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사회주의 국제주의는 사회주의권 사람들의 공산주의 혁명을 향한 열망과 연대를 반영하였고, 1920-30년대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운동으로 대표되는 반대 진영의 자유주의 국제주의는 민주주의, 자유 무역, 군비 축소,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중시했다.

본 글은 윤치호의 특수성을 포착하기 위해 두 가지의 특정한 국제주의 갈래에 주목한다. 첫째, 자신의 국가적 정체성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우선시하며, 국경을 넘어선 복음 전파 운동과 그리스도인들의 초국가적 연대에 관심을 보인 기독교 국제주의에 초점을 둔다. 특히 본 글은 세계교회주의 운동과 그 초석이 되었던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를 중심으로 윤치호를 해석한다. 물론 넓은 의미의 기독교 국제주의는 로마 가톨릭의 국제주의를 포함할 수 있다(Chamedes, 2019). 로마 가톨릭 국제주의는 바티칸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법적, 외교적, 문화적, 기술적 노력을 통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본 글은 특히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주의 운동, 그중에서도 세계교회주의 운동에 초점을 맞춘다.

둘째,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비서구 민족주의 운동가들의 초국가적 연대를 기반에 둔 민족자결주의 국제주의의 관점으로 윤치호의 후기 사상을 조망한다. 20세기 초 민족자결주의(national self-determination) 운동, 이른바 윌슨주의(Wilsonianism)는 한국을 비롯해 이집트, 인도,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민족주의적 열망을 자극했고, 이로 인해 '내셔널리즘의 국제화'라는 역설적이고도 독특한 국제주의 운동이 등장했다. 윤치호는 민족자결주의 국제주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비서구 민족주의자의 조건을 어느 정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이 현상을 '정치적 인플루엔자'라고 지칭하는 이탈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윤치호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그의 내밀한 국제인식과 신앙관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윤치호의 국제인식을 단순히 한 인물의 개인적 종교 색채로 보는 관점을 넘어, 빠른 국제화의 시대 속에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국제적 변화들에 대한 비서구 지식인의 반응이자 응답으로 바라보려는 시도이다. 일제 식민 지배라는 억압적 그림자로 뒤덮여 있던 한반도의 상황과는 달리, 서구인들에게 20세기 초반은 타 국가와의 협력, 타 문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가득한 국제주의의 시기였다. 당대 서양인들의 국제주의는 새로운 문화와 더욱 깊고 넓게 교류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반영한 동시에 앞으로 식민지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혼란을 동반한 운동이기도 했다. 바로 이 시기에 조선의 윤치호는 한국에서 에딘버러까지의 이동을 감행하며 '비기독교 국가의 대표'로 국제 선교 문화에 관해 연설했다. 당시 혼란기를 겪고 있던 조선의 입장에서 윤치호의 경험은 조선의 생존과 국제적 지위 획득을 위한 투쟁 과정이었지만, 비교

적 희망에 가득 찬 국제주의 물결이 흐르던 서구인들의 입장에서 윤치호는 먼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신실한 비서구인이었다.

본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윤치호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두 가지의 국제주의 운동 형태를 소개하며, 각각의 관점에서 왜 윤치호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설명한다(2장). 다음, 윤치호의 WMC 경험과 '산재한 악'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된 윤치호의 국제인식을 살펴본다. 내밀한 신앙관과도 깊이 연결된 그의 국제인식이 어떻게 윤치호가 경험한 모순적 상황과 뿌리박힌 회의론을 반영한 사상적 도구가 되었는지 알아본다(3장). 또한, WMC 이후 에큐메니즘 운동과 윤치호의 행보를 살펴보며, 어떤 내적인 변화가 그를 윌슨주의로부터 이탈하게 만들었는지 검토한다(4장).

윤치호에게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서구'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내밀한 사적 경험과 다양한 외부 경험이 중첩되어 형성된 다층적 감정과 관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복잡성과 독특성을 국제주의 관점에서 조명하며, 마지막에는 이러한 과정이 향후 기독교적 고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언급한다(5장).

Ⅱ.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본 윤치호의 특수성

본 장은 여러 국제주의 운동의 갈래 중에서도 세계교회주의 운동을 중심에 둔 기독교 국제주의와 윌슨주의 운동으로도 불리는 민족자결주의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윤치호의 행보를 살펴본다. 이 두 관점에서 본 윤치호의 국제인식은 매우 독특한 모습을 지닌다. 윤치호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본 장은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로 대표되는 기독교 국제주의 운동 속 윤치호의 역할을 살펴보며, 이후 그가 친일적 행보를 선택한 맥락을 윌슨주의의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기독교 국제주의와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WMC)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일찍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비기독교, 비서구 지역에 선교사들을 꾸준히 파송해왔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그 선교사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선교지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행정적, 정치적 문제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생겼다. 더군다나 점점 국제화되는 세상 속에서 타 국가, 타 인종, 타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해석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기독교 차원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은 자

연스럽게 부각 되었다. 이때, '세계교회주의 운동'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에큐메니즘(ecumenism) 사상과 운동이 활발해지며, 각 지역이나 문화의 경계선을 초월한 '세계적' 교회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의 연대와 협력이 강조되었다. 20세기 국제 교회사를 연구한 브라이언 스탠리(Stanley, 2018)에 따르면, 20세기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세기(the century of ecumenicalism)"였다. 그리고 1910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선교대회(World Missionary Conference, 이하 WMC)는 이 세기의 개막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동안 역사학계는 1차 세계대전(1914-1918) 발발 전후로 활발했던 여러 국제주의 운동을 '이상주의적'이거나, 결과적으로 전쟁을 막지 못한 '실패작'이었다는 이유로 간과한 경향이 있었다. 교회사학계 역시 세계대전 이후 기독교인들이 경험한 상실과 좌절에 주로 집중하면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가진 사회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 그러나 세계대전은 이러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열기를 아예 꺾어버리거나 무효화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가 유럽과 비서구 지역에 더욱 침투할 기회로 작용하여 그 열기를 다시 뜨겁게 만든 계기 중 하나였다(Donahue, 2015). 즉, 20세기 초 에큐메니컬 운동과 에딘버러 선교대회는 향후 기독교 국제주의가 더욱 활발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큐메니컬 국제주의는 여러 국제주의 담론 중 하나였지만, 때로는 자유주의 국제주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서구의 자유주의 국제주의를 에큐메니컬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들에 따르면, 20세기 초 서구 교회들이 제시한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의 비전은 자유주의 진영에 속한 정치권의 국제주의 흐름과 맞물려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었다 (Donahue, 2015 ; Stanley, 2018). 당시 자유주의 국제주의의 정치적 담론은 국가 간 갈등 완화, 전쟁 방지, 그리고 평화 증진과 같은 논의를 중심으로 비밀외교보다는 '신외교'의 중심이라고도 불리는 대중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는 일반 시민들 간의 국제적 도덕 담론을 형성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Gorman, 2010 ; Stanley, 2018). 과거부터 발전해온 기독교적 선교 비전은 국제주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현상과 정치적 맥락과 결합 되었고, 단순히 종교적 형태를 넘어서 서구의 근본적인 국제 인식, 외교 정책, 그리고 식민지 관리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국제주의적 열망은 비서구 문화권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며 상호 작용했을까? 윤치호는 WMC 둘째 날인 6월 15일에 진행된 "모든 비기독교 세계에 복음 전하기(Carrying the Gospel to All the non-Christian World" 세션과 셋째 날인 6월 16일에 진행된 "선교 현장의 교회(The Church in the Mission Field)" 세션에서 조선의 선교 상황과 비서구 대표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기독교 선교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물론, 윤치호는 당시 WMC에 참석한 1,215명의 대표 중 한 명으로서 그

의 발표는 총 8개의 대회 주제 중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에큐메니컬 국제주의 역사에서 WMC는 서구 기독교인들이 비서구 선교지 사람들을 대면하고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접하며 신학적 고민을 본격적으로 풀어낼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로 회자된다 (Sanecki, 2006). 윤치호는 서구인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난 첫 비서구 선교지 사람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세기 초 서구 국제주의 운동의 역사와 이후 세계교회주의 운동의 흐름 속 1910년 WMC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1910년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었던 WMC는 교계 인사나 선교사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많은 주목을 받으며 성황리에 끝난 대회로 알려져 있다 (Sanecki, 2006). 이 대회는 개신교 교단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선교와 관련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독교 세계 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대회의 저녁 세션은 일반 사람들도 참석할 수 있게 개방되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대회 종료 직후 영국과 미국에서는 WMC에 관한 언론 보도가 쏟아졌으며, 영국의 타임즈(Times)지는 곧바로 굉장히 긴 분량의 기사를 내기도 했다(Sanecki, 2006: 126). 해당 기사는 WMC의 “장엄한(grandeur) 개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찬사를 보냈고, WMC는 존 모트(John R. Mott) 의장의 “큰 승리이자 업적(triumph)”이라고 평가하며, 그를 “타고난 대회 전문가(born master of assemblies)”라고 칭찬했다.

WMC에서 논의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비서구 선교지에서의 기독교 확장과 그 과정에서 직면한 도전과 과제였다. 이 논의에서 서구 교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비서구 지역 기독교인들과의 협력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을 모색한 초기의 시도였다. WMC가 대중적인 영향력을 지닌 행사였고, 그러므로 당시 식민지 문제와 선교 확장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비서구 ‘이웃’들과의 조우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논의와 식민지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즉, WMC는 비서구 선교지에 대한 인식 변화의 중심에 있던 사건이었고, 19세기부터 이어진 식민지 선교에 대한 내적 성찰과 이후 여러 에큐메니컬 운동의 촉발을 가능하게 해준 대화의 장이었다 (Sanecki, 2006). 그동안 흩어져 있던 비서구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론적으로만 논의되던 토착민 선교의 현황과 실제 경험을 생생하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의장이었던 존 모트는 WMC를 회상하며,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견고한 인종적 편견”을 돌아보고 “인종 간의 연합을 더욱 갈망하게 된” 계기였다고 표현했다 (Hartley, 2012: 29).

물론 WMC가 실질적으로 대변했던 다양성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제기하는 관점도 존재한다 (Stanley, 2006). 이러한 관점은 WMC가 기독교국(Christendom)의 경계를 강화하는 배타적인 행사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WMC 개최 준비 과정에서 천주교와 동방 정교회 교인들의 참여는 공식

적으로 거부되었음을 지적한다(Stanley, 2018).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대회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도가 뒤섞인 역동적인 대화의 장이었다. 최소한 서구 개신교계 내에서는 식민지 사람들과 제국주의에 대해 더 풍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인종 문제를 보다 확장된 시각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WMC는 의의를 지녔다. 실제로 WMC 참석자들은 비서구 기독교인을 실제로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자신의 생각이 이전과 같을 수 없다고 말하며, 더 이상 비서구 토착 교회의 상황을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Sanecki, 2006: 141).

WMC 개최 이전에도 두 차례의 선교대회가 각각 런던(1888)과 뉴욕(1900)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비서구 선교지의 선교사들과 토착민 기독교인들이 직접 대회장에 참석한 것은 에딘버러의 선교대회가 처음이었으며, 이는 사실상 첫 번째 '세계' 선교대회였다. 이 대회를 계기로 앞서 언급된 "에큐메니컬 운동의 세기"가 시작되었고, 이후 에큐메니컬 운동은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의 창설로 대표되는 서구 자유주의 국제주의 운동의 기반에도 영향을 미쳤다 (Stanely, 2018).

예를 들어, WMC에서 의장과 준비 위원회 대표를 맡았던 여러 임원들은 이후 디킨슨(Willoughby Dickinson)이 주도한 1914년 "국제적 친선을 위한 세계 연합(World Alliance for International Friendship)"에 다시 임원으로 참여했다. 디킨슨은 국제연맹 설립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이며, 국제연맹의 취지에 기독교적 연대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Gorman, 2010). 또한, 존 모트 의장은 1910-20년대 국제연맹 창설 운동을 주도했던 미국의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였으며, YMCA 대표로서 윌슨의 전시 노동(United War Work) 캠페인을 가장 활발히 이끌어간 인물이기도 했다 (Donahue, 2015 ; Petit, 2022). 20세기 초 기독교 단체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는 세계 정부와 국가 간 연합을 꿈꾸는 이들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이 되었다.

2. 윌슨주의(Wilsonianism)와 윤치호의 깊은 회의론

그동안 윤치호의 친일 행보는 그의 전반적인 사상과 파악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자 특이점으로 여겨졌다. 특히 윤치호는 여러 관직에서 활동하고, 복잡한 국제정세 속 나약한 조선의 국제적 위치를 목격한 뒤 "결국 힘이 정의다"라는 현실주의적 결론에 도달하며 친일적 견해를 밝혔다고 알려져 있다(김상태, 2001: 95). 즉, 그의 친일 행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태도는 세계정치에 대한 깊은 회의론이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윤치호의 내면에는 "중심부와 강한 것에 대한 선망, 그리고 역으로 주변부의 약한 조국에 대한 열등의식"이 존재했으며, 결국 그의 회의적인 입장은 그가 "서구적

질서에 대한 전복을 꿈꾸기보다는 일본이라는 대안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김용신, 2022 ; 정용화, 2001b). 윤치호가 세계정치에 관해 보였던 깊은 회의론은 단순히 정치에 관한 현실적이고 냉철한 의문을 품게 함을 넘어, 그의 내면에 패배감과 피해의식, 그리고 더 나아가 무력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1910-20년대에 많은 식민지 국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윌슨의 순간(Wilsonian moment)"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피식민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에즈라 마넬라(Manela, 2007)에 의하면,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선포한 14개 조항 원칙과 그로부터 확산된 민족자결주의라는 이상은 의도치 않게 한국을 포함한 비서구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운동에 중요한 자극제가 되었다. 민족자결주의는 당시 조선뿐만 아니라 이집트, 인도,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민족주의자들에게 유용한 사상적 도구로 사용되며 확산되었다.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서구 자유주의 사상은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개신교 선교사들이나 해외에 살고 있던 지식인들에 의해 유입되어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며, 진보, 근대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마넬라(Manela, 2007: 133)는 한국에도 "윌슨의 수사(rhetoric)가 가진 잠재적 유용성"을 알아보고 선망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단체를 조직하며, 교육을 중요시 여기고, 정치적으로 체계화된 덕분에 한반도에도 "윌슨의 순간"이 찾아왔다. 이는 1919년 예정된 파리 강화 회의에서 윌슨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해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이어졌고, 3.1운동과 같이 대중들을 대규모로 연대하게 하는 공통의 지지기반을 제공했다.

그동안 국내 연구에서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조선의 3·1운동을 촉발한 주요 외부적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김승렬, 2011 ; 김지훈, 2013). 최근에는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민족자결주의'라는 개념이 제시된 의도와 맥락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민족자결주의가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의 논의에서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김숭배, 2019), 윌슨의 주장이 동시대 레닌의 주장과 대립하는 서구 중심적 민족자결이었다는 점(조규태, 2011), 그리고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윌슨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송지예, 2012)을 지적한 국내 연구들은 국제주의적 이상과 조선의 식민지적 현실 사이의 복합적 역학을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넬라(Manela, 2007)의 연구는 윌슨주의적 국제주의 운동을 "내셔널리즘적 국제주의"라는 역설적 현상으로 포착하며 조선 독립운동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특히 이 관점은 20세기 초 제국의 질서가 약화되며 여러 지역에서 민족국가라는 새로운 정치체들이 급속히 증가하던 시기에, 새로운 국제질서 구상에 기여했던 다양한 주체들의 사례를 조명하는 데 의의를 지닌다. 승전국의 서구 중심적 의도로 발신된 정치적 수사가 비서구권으로 전달되어

국제주의적 반응을 이끌어낸 과정을 탐구하는 것은, 이 시기 국제정치 재편 과정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이 연구는 국제주의 운동의 기반에 내재된 민족주의적(nationalist) 특성을 드러내는 사례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가 제시하는 분류법에 따르면, 윤치호는 윌슨주의 지식인이 지닌 대부분의 특징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는 조선 내의 서구 자유주의 사상을 일찍이 접했고, 해외 경험이 많았으며, 심지어는 마넬라(Manela, 2007: 122) 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근대 민족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단체"라며 예시로 들었던 독립협회 모임에 직접 참석하여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윌슨과 민족자결주의에 큰 감명을 받고 더욱 열렬한 저항운동에 힘을 실었던 다른 민족주의자들과는 달리, 윤치호는 오히려 윌슨과 민족자결주의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분노에 가까운 회의감을 느끼며 끝내 1919년 파리강화회의와 3.1운동 참석을 거부한다. 이는 윤치호의 친일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렇듯 20세기 초반 비서구 국가들의 공통적인 탈식민주의 흐름에 주목하는 국제사(international history)적 관점에서도 윤치호의 국제인식과 정치적 행보는 분명 독특하다. 기존 사학계의 연구에서 분석하듯, 윤치호는 서구에 대한 열망과 피해의식, 그리고 패배감이 공존하는 특유의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글은 더욱 근본적으로 그의 내면에 깔린 죄악관, 즉 '악의 개념'에 대한 그만의 신앙적 경험과 해석에 주목한다. 다음 장에서는 윤치호만의 죄악관을 형성하는데 1905년과 그 이후의 경험, 특히 1910년 에딘버러 세계대회 참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탐구하려 한다.

III. 윤치호의 세계선교대회 참여(1905-1910)

기독교 국제주의의 물결을 직접 경험한 윤치호는 어떤 심경이었을까? 전반적으로 윤치호가 대회를 회상하며 보인 태도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1940년에 그는 당시 백인 발표자들이 앵글로색슨족을 찬양하는 데 시간을 낭비했다며 저속한 국수주의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기억했다 (안신, 2010: 10). 하지만 윤치호가 에딘버러에서 경험한 불쾌감은 단순히 WMC에서 표출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1880년대에 노예로 활동했던 가난한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교사로 일하며 목격한 백인들의 깊은 우월의식과 인종차별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했었다.

특히 윤치호는 미국 유학 시절부터 남감리교의 여러 종교 의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그때부터 서양인들이 주장하는 보편적 종교(universal faith)에 깊은 의심을 품었기 때문에 대부

분 참석을 거절했다. 윤치호는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여겼지만, 공격적인 선교에는 반대했으며 비기독교 지역의 전통적인 종교의 독특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독교의 교리를 궁극적인 진리로 여겼으나, 다른 종교의 교리에도 진리가 담겨 있을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종교의 독특성과 상호 차이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따라서 1893년에 시카고 세계종교의회에 초대받았을 때도, 글과 사상만으로 이루어지는 종교 간 연합을 위한 노력에 큰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안신, 2010: 4).

18년 후, 윤치호는 각각 미국 애틀랜타(3월)와 에딘버러(6월)에서 두 차례의 연설을 발표했다.[1] 그의 연설에는 사람들이 붐비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높은 참석률을 기록했으며, 그는 자신 있게 자신의 선교관과 조선의 선교 현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1910년은 그가 많은 청중 앞에서 "인생의 최선을 다한 대열변"을 펼치게 된 해였다 (김영희, 1999). 과거에는 선교, 종교 화합, 비서구 지역 선교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그가 왜 열변을 하게 되었는지는 연설문 내용을 통해 조금씩 파악할 수 있다.

1910년 3월 미국 남감리교 평신도대회에서 윤치호가 펼친 주장 중 주목할 부분은 그가 "분산화(scatteriz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해 선교관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윤치호는 1910년 6월 에딘버러로 가기 직전인 3월에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남감리교 평신도대회에 참석해서 처음으로 이 개념을 사용하게 되고, 이후 세계선교대회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선교관을 제시한다 (김영희, 1999 ; 안신, 2010). 안신(2010: 12)에 따르면, 윤치호가 말한 분산화는 당시 서구의 선교 사업이 "외면과 평면적으로 넓어지고 벌여 놓으며 (…) 무작정 일을 벌이려 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용어였다. 그는 힘을 분산시키는 대신, "전 힘과 일을 견실한 한곳으로 집중"하는 것이 선교전략의 핵심이라고 여겼으며, 이는 보편적 종교에 대한 경계를 표명했던 그의 기존 신앙관과 일맥상통했다.

세계선교대회에서 발표된 윤치호의 연설문을 요약하자면, 당시 그가 WMC에서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World Missionary Conference, 1910: 411-412). 첫째, 윤치호는 조선에서의 설교를 "수많은 위험(great dangers)에 맞서"서 선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조선에 이미 만연한 유교와 불교는 영향력이 매우 강하며, 윤치호는 이를 조선인들을 둘러싼 여러 "위험"의 일종으로 보았다. 둘째, 그는 조선의 문호 개방 이후 서구 철학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것 또한 조선에서의 선교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요소로 보았다. 서구 철학은 세속주의, 무신론, 회의론을 동반하여 조선에서의 선교를 방해할 것이라고 믿었

1) 본 글에서 윤치호의 내적 변화를 서술하는 내용은, 평신도 대회 및 세계선교대회 보고서의 원문과 윤치호의 대회 참석에 관한 서신들을 직접 열람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안신(Ahn, 2006)의 논문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안신의 분석을 바탕으로, 필자가 추가적으로 조사한 사료(윤치호의 일기)를 더하여 이 글의 관점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다. 셋째, 윤치호는 당시 조선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회심" 현상을 위험하다고 표현하며, 선교는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되기보다는 토착 문화와 사람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서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윤치호가 3월에 비판한 '분산화'의 의미는 단순히 무작정 일을 벌이며 '선교 현장을 망치는' 서구 기독교인들의 선교전략 뿐만이 아니다. 앞서 언급된 그의 연설문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윤치호는 선교 현장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조선을 대내외적으로 둘러싼 다양한 종류의 '위험'을 지목했다. 조선은 외부적으로는 서구 철학의 유입, 내부적으로는 불교와 유교, 사람들의 급격한 회심 등으로 인해 '위험'의 한가운데에 처해 있었다. 윤치호는 조선 선교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이후 윤치호는 분산화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부정적이고 위협적인 '위험'의 요소들이 대내외적으로 자신들을 둘러싸고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1. "산재된 악"이 가득한 세상

윤치호의 선교관은 어떤 맥락에서 형성되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에딘버러 연설이 세상에 공개되기 약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WMC 참석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유학 시절부터 이미 백인들의 인종차별적 사회에 배신감을 느꼈던 윤치호는, 1896-97년 러시아 황제의 대관식을 위해 출국한다. 그곳에서 그는 동방 정교회(Orthodox Church)가 러시아의 빈곤과 매춘 같은 '사회적 악'을 제거하는데 실패한 모습을 보고, 프랑스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여전히 과도한 종교적 의식주의에 빠진 모습을 목격한다. 또한 베트남과 홍콩에서는 서구 제국주의의 만연한 흔적을 직접 보며 더 큰 환멸을 느낀다(Ahn, 2006). 동시에 조선에 있던 미국 선교사들 사이에서 벌어지던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목격하면서, 자신이 속한 개신교에도 크게 실망하게 된다. 윤치호는 다양한 나라에서 서구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의 영향력을 직접 목격하며 '힘이 지배하는' 국제정치에 점차 실망하게 되었다.

1905년, 윤치호의 사적 경험과 정치적 경험이 맞물리며 그는 깊은 내면적 변화를 겪게 된다. 그 해 그는 아내와의 사별을 하고, 가츠라-태프트 밀약(Taft-Katsuar Agreement, 일본의 총리 가츠라 타로와 미국의 전쟁 장관 윌리엄 태프트 사이에서 비공식적으로 체결된 협정)의 실체를 알게 되며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하와이로 건너가 가난하고 착취 당하는 조선인들의 현실을 목격한다. 윤치호는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세상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세상을 그저 "공통된 인간의 악함에 기반한 산재된 악"으로 가득한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여

기기 시작한다 (Ahn, 2006: 129).

안신(2010)에 따르면, 이때 윤치호의 신앙관은 거의 이신론적(Deistic)이라고 할 정도로 선한 신의 개입은 거의 없고 세상 속의 악이 산재해 있다고 믿게 되었다(p.112). 특히 아내의 죽음 이후 그는 "모든 욕망이 다 사라졌고 (…) 죄와 슬픔만이 가득한 이 세상을 벗어나 그녀를 만날 생각만 한다"고 기록하며,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좌절 뿐만 아니라 매우 사적이고 내밀한 차원의 슬픔을 겪었다 (1905/2/10, 박미경, 2015: 97). 이를 통해 그는 세상에 '산재한' 악과 죄의 습성을 더욱 깊이 체감했다고 볼 수 있다. 1905년 윤치호의 내밀한 기록에서 사용된 "산재한 악"이라는 표현은, 결국 자신의 뿌리 깊은 죄성과 나약한 한계를 고백하고 회심하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후 1906년 윤치호의 일기에서 "산재한(scattered)"이라는 용어가 다시 등장한다. 그는 당시 조선에 있는 선교사들이 "분산되고 낭비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교를 위해서는 한 가지에 집중되고 협력된(combined)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hn, 2006: 132). 윤치호는 기본적으로 선교와 신앙이 분산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05년 그의 표현에 따르면, 여기저기 '산재한 악'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산 대신 집중과 몰입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치호만의 특수한 현실 인식은 죄악에 대한 관념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그가 유학 시절 겪은 경험, 외교 현장을 목격한 경험, 사적인 가족 관계에서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정치적 경험 등 다양한 층위의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05년부터 1910년은 윤치호가 서구, 특히 미국에 대한 분노가 깊어지던 시기였으며, 이는 개인적 고통과 맞물려 그가 악과 죄의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환멸이 절정에 이르러 이른바 '대열변'을 하게 된 장소가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였다. 1910년 그의 '분산화'에 대한 언급과 WMC 연설을 보면, 조심스러웠던 선교에 대한 태도가 '우리를 둘러싼 위험 요소'에 대한 강한 호소로 변화했음을 볼 수 있다. 이 변화는 그가 세상을 '산재한 악'이라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 이후에 나타났다. 즉, 윤치호는 세상이 '산재한(scattered)' 악과 위험으로 뒤덮인 곳으로 보았으며, 그 속에서 본질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에 집중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그가 당시 국제적 환경 속에서 경험한 모순적 상황과 깊이 뿌리 박힌 회의론에 맞설 수 있는 사상적 도구가 되었고, 결국에는 그의 정치적 행보로 이어지게 되었다.

IV. WMC 이후 에큐메니즘 운동과 윤치호의 행보(1919)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WMC는 비서구 토착민 기독교인들과 처음으로 대면하고, 더욱 다문화적인 세계교회주의 운동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선교교회가 끝난 후 1912년부터 1914년까지 모트(Mott)는 당시 대회에 참석했던 비서구 국가들을 직접 방문하며, 각 선교지 교회의 현황과 선교 방식을 토착민 및 선교사들과 논의했고, 이를 보고서로 기록했다. 특히 1912년 서울에서 진행된 후속 위원회의 기록에는 당시 조선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조선 기독교인들은 "일본인들과 분리"되고 싶어하며, "한국어로 성경을 만들고 싶어한다"고 전했고,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 기독교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Mott, 1913). 서구 기독교인들에게 WMC와 후속위원회는 비서구 선교지의 상황과 사람들의 정서를 더욱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반면, 비서구 토착민 기독교인인 윤치호에게 세계선교대회는 1890년대부터 시작된 그의 세계정치와 서구 권력자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세상에 산재된 악에 대한 다층적 환멸을 열변으로 토해내며, 자신만의 죄악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선교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윤치호는 서구 백인들에 대한 거부감과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다. 따라서 WMC에 대한 그의 기억도 참가자들의 백인 우월주의적 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다. 그렇다면, WMC는 이후 윤치호의 실제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1. "토착 기독교"에 대한 옹호

에딘버러에서의 경험은 윤치호가 앞으로 '분산화의 위험'에 맞서 무엇에 집중하고 몰입할 것인지 명확히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준 계기가 되었다. 그는 조선에서 토착 기독교, 즉 조선의 토착 문화를 배제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닌 수용하고 조선만의 고유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며 자신의 선교 방식을 구상하게 된다. 이는 그의 미국 유학 시절부터 형성된 독특한 신앙관과 맞물렸다. 그는 기독교를 유일한 진리의 기준이라고 믿으면서도, 다양한 문화와 다른 종교들도 그 자체로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Ahn, 2005: 150). 윤치호는 다른 문화와 종교에 '악'의 요소가 있다고 보면서도,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이는 윤치호가 비서구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이 믿는 진리와 자신이 경험하고 체화한 문화적 뿌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자신의 신앙관을 형성한 결과였다.

윤치호의 입장은 당시 서구 복음주의자들, 특히 조선에 온 미국 선교사들의 신학적 배경을 기준

으로 보면 매우 교차적이고 독특한 모습이다. 그가 종교적 근본주의 입장은 아니었지만, 종교 보편성을 쉽게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에도 반감을 가졌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과 문화와의 교류와 확장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가 생각한 선교는 "일치"가 아니라 "연합"을 목표로 했고, 조선에서 종교적 특수성을 간과하지 않는 기독교적 연합을 위해서는 토착적 기독교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윤치호는 예정론을 믿는 칼빈주의자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 의지와 선택, 성화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감리교인이었다(Ahn, 2005: 27). 그의 신학적 배경을 고려하면, 윤치호는 교차적인 신학적 위치에서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며 세계선교대회에서 토착문화 선교에 대한 전략을 공유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WMC는 다양한 비서구 지역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 활동을 이어갔는지 확인하고 공유하는 장이었다. 셋째날의 세션 3은 "민족적(national) 삶의 기독교화(Christianization)"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비서구 식민지와 선교지에서 온 선교사 및 교육 전문가들이 각 지역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WMC는 비서구 선교지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공유하는 장으로서 이후 20세기 비교 지역 교육 연구 전통을 세우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Jensz, 2018).

윤치호는 WMC 이후 자신이 집중하고 몰입할 일은 조선의 토착문화와 상생하는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조선을 둘러싼 '산재한 악' 속에서 토착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는 것이 자신의 선교관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기독교의 한국적 토착화에 힘썼다(Ahn, 2006: 139-154). 더 나아가, 윤치호는 토착 기독교를 기반으로 WMC 이후 다양한 국제 기독교 연합에 관심을 가지려 했고, YMCA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1911년 모트(Mott)가 제안한 세계 기독학생 연합회(World Student's Christian Federation)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려 했다. 이러한 흐름은 그가 WMC 이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근대화 교육 활동에 더욱 몰두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했으며, 토착문화와 공존하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근대화 교육을 도모하는 데 힘을 쏟게 했다. 윤치호에게 WMC는 자신이 느낀 환멸의 절정에서 열변을 토한 장소일 뿐 아니라, 산재한 악과 위험에 맞서 종교적 특수성에 집중한 연합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한 계기였다.

2. 1919년 친일 행보의 시작

윤치호는 귀국 직후인 1911년부터 105인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 1912년부터 3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1910년 전후의 경험을 통해 그가 겪은 심경의 변화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거나 실천적 활동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1911년부터 시작된 조선총독부의 탄압 때문이다. 1911년부터 시작된 일제의 탄압과 수감 생활로 인해 그의 환멸은 더욱 깊어졌고, 여기에 반

식민주의 행동에 대한 회의감과 무력감이 더해졌다. 어쩌면 이는 '산재한 악'에 대한 윤치호의 상상과 추론이 실질적으로 드러났다고 보인 순간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악'이 인종주의나 식민주의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

특히 수감 생활을 하며 윤치호는 미국에 대해 더 큰 배신감과 회의를 느꼈다. 20세기 초반부터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제국주의적 연대와 상호교류가 시작되었고, 특히 제국과 인종에 대한 관념이 공유되었다. 미국과 일본은 자신들의 제국주의 기획의 공통점을 찾으려 했으며, 이를 정당화할 인종주의적 논리를 조선에서 발전시키려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점점 조선에 대한 일본의 제국주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인종주의적 논리들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이를 가장 날카롭게 꿰뚫고 있던 인물이 바로 윤치호였다 (Suh, 2023). 그는 유학 시절 미국의 인종차별적 사고방식과 논리를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미국과 일본의 의도와 모순을 누구보다 먼저 간파했다.

그러나 미국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은 윤치호가 연루된 105인 사건을 일제의 제국주의 탄압이 아닌 단순히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만 인식했다. 이에 윤치호에게 국제정치적 불의와 힘의 논리가 실질적 고통으로 다가왔고, 그의 회의감, 무기력함, 나약함에 대한 인정은 절정에 이르렀다. 그는 산재된 악 속에서 '차악'을 택하는 논리로 자신의 선택과 집중의 노선을 결정하게 되었다. 윤치호는 세상 어디에나 흩어진 악의 종류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으며, 당시 그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일본이었다.

따라서,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온 후 국제사회의 소식마저도 윤치호에게는 '산재한 악'의 일종으로 여겨졌다. 그는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피식민국의 독립운동 소식도 접했지만, 이러한 독립운동의 물결을 곳곳에 퍼져 전염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로 비유했다. 윤치호는 생존을 위해 자신이 집중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판단했으며, 당대 국제적 '윌슨의 순간'에 동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거부감을 드러냈다.

> 몽골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카이로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독립운동은 일종의 정치적 인플루엔자인 모양이다. (…) 시위자들이 순전한 조선인들에게 선전하고 있는 내용의 요점은, 윌슨 대통령의 호의로 파리강화회의에서 조선 독립을 선언할 때까지 만세를 부르자는 것이다. 시위자들의 태도가 그토록 진지하지만 않았다면 웃을 일이었을 텐데." (1919/03/27, 김상태, 2001, p. 94)

결국 1930년대에 들어 윤치호는 차악 개념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며 자신의 친일적 입장을 설명하

게 되었다. 그리고 '악에 대한 두려움'이나 '용서'와 같은 성경적 용어들을 사용해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해명했다(Ahn, 2006: 216). 윤치호에게 이는 "현실과의 타협"과 "청년들의 희생"이라는 죄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자신은 이 산재된 악에 둘러싸인 채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1938/07/23, 김상태, 2001: 402). 수많은 국제적 경험 속에서 공적 '악'과 사적 '악'이 얽히며 죄와 고통의 문제로 씨름하던 윤치호는 결국 일본이라는 차악을 선택하는 최종적 행보를 보였다.

V. 나가며

본 글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국제적 인물로서 윤치호만의 내밀한 국제인식을 파악하고자 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조선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윤치호의 행보, 즉 근대적 문호 개방과 일제강점기 등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혼돈의 시기'를 살아간 조선인으로서 윤치호의 세계관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많았다. 그러나 본 글은 윤치호의 내면적 변화와 사상적 기반을 단순히 서구 우월주의나 서구에 대한 패배 의식으로 해석하는 기존 연구들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서구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물결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주목하여 윤치호를 재해석하였다. 국제주의라는 관점을 통해 그의 내면을 살펴보며, 더 거시적인 국제사적 맥락에서 윤치호의 특수성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했다.

특히 본 글은 여러 국제주의 운동의 갈래 중에서도 세계교회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국제주의와 윌슨주의 운동으로도 불리는 민족자결주의 국제주의의 관점에서 윤치호의 행보를 살펴보았다. 이 두 관점에서 본 윤치호의 국제 인식은 매우 독특한 모습을 지녔다. 윤치호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본 글은 1910년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선교대회 전후 그의 내밀한 심경 변화와 신앙관에 주목했으며, 그가 3.1운동을 '정치적 인플루엔자'라 부르며 친일적 행보를 선택한 맥락을 윌슨주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물론 19세기부터 조선에 서구 사상이 유입되면서 선교사들과 함께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기독교가 많은 지식인에게 개화의 원천이자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윤치호에게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서구'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내밀한 사적 경험과 다양한 외부적 경험이 중첩되어 형성된 다층적 감정과 관념을 내포하고 있었다. 국제주의라는 관점은 이러한 복잡성과 독특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국제주의적 흐름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한 사례들에 주목함으로써 기존 국제주의에 대한 역사적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최근 기독교의 국제적 연대와 대회 개최, 그리고 세계교회주의 운동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글은 윤치호와 같은 주변부 인물들의 특수한 사례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여, 국제적 기독교 운동의 사회정치적 층위를 다각도로 해석하고자 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계는 끊임없는 통신 기술의 발달과 온라인 세계의 확장으로 더 다양한 형태의 국제화 현상이 목격될 가능성이 크다. 초기 기독교 국제주의 운동이 확산된 지 11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국제'란 무엇인가? 우리의 국제인식은 향후 정치적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앞으로 우리가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할 주제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김경일 (2008). 문명론과 인종주의, 아시아 연대론-유길준과 윤치호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와 연구**, 0(78), 129-167.

김상태 편역 (2001). **윤치호 일기:1916-1943**. 서울: 역사비평사.

김숭배 (2019). 반(反)베르사유: 국제적 민족자결론과 한국적 분화의 연계성. **국제정치논총**, 59(2), 323-362.

김영희 (1999). **좌옹 윤치호 선생 약전**. 서울: 좌옹윤치호문화사업회.

김용신 (2022). 내재화된, 그러나 다가갈 수 없는 서양 : 일기를 통해 본 청년기 윤치호의 서양 인식. **동국사학**, 73, 5-32.

김지훈 (2013). **3·1운동의 성격과 의의 재고찰: 민족 담론의 형성과 재생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남궁곤 (2010). 오바마 행정부 국제주의 외교정책 이념의 역사적 유산과 실제. **국제정치논총**, 50(1), 91-118.

류충희 (2015). 윤치호의 계몽사상과 기독교적 자유: 후쿠자와 유키치의 자유관과 종교관의 비교를 통해서. **동방학지**, 171, 37-71.

류충희 (2016). 1910년대 윤치호의 식민지 조선 인식과 자조론의 정치적 상상력 -최남선의 자조론과의 비교를 통하여. **동방학지**, 175, 195-224.

박미경 역 (2015). **국역 윤치호 일기 7**.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안신 (2010). 윤치호의 선교사상과 에딘버러선교대회-한국적 선교신학의 가능성. **선교신학**, 24(4), 221-238.

유영렬 (2004). 윤치호의 문명개화의식과 반청자주의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33-62.

정용화 (2001a). 문명개화론의 덫. **국제정치논총**, 41(4), 297-314.

정용화 (2001b). 주변부 지식인의 허위의식: 『윤치호 일기』, 국사편찬위원회편. **동아시아비평**, 7, 5-16.

조규태 (201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3·1운동 서술의 체계와 내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9, 375-408.

송지예 (2012). "민족자결"의 수용과 2·8 독립운동.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1(1), 179-209.

심지화·이단혜·김정수 (2017).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딜레마에 관한 시론 — 중소 동맹의 결렬로 본 사회주의 국가관계의 구조적 불균형. **대동문화연구**, 98(0), 11-37.

Ahn, S. (2006). *From Conversion to Transformation: A Religious Interpretation of Yun Chi-ho* (1865-1945).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Edinburgh. Edinburgh, UK.

Chamedes, G. (2019). *A Twentieth-century Crusade : The Vatican's Battle to Remake Christian Europe*. Massachusetts: Harvard UP.

Gorman, D. (2010). Ecumenical Internationalism: Willoughby Dickinson, the League of Nations and the World Alliance for Promoting International Friendship through the Churches.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45(1). 51-73.

Gorman, D. (2012). *The Emergence of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1920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rtley, B. L. (2012). "That They All Might Be One": John R. Mott's Contributions to Methodism, Interreligious Dialogue, and Racial Reconciliation. *Faculty Publications-College of Christian Studies*. 295.

Holbraad, C. (2003). *Internationalism and Nationalism in European Political Thought*. London: Palgrave Macmillan.

Jahn, B. (2018). Liberal internationalism: historical trajectory and current prospects, *International Affairs* 94(1). 43-61.

Jackson, P., Mulligan, W. & Sluga, G. (Ed.). (2023). *Peacemaking and international order after the First World W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ensz, F. (2018). The 1910 Edinburgh World Missionary Conference and comparative colonial education, *History of Education*, 47(3), 399-414.

Petit, J. (2022). Mobilizing the Spiritual Resources of the Nation: The 1918 United War Work Campaign. *Church History*, 91(3), 596-625.

Donahue, J. M. (2015). *In search of a global, godly order: The ecumenical movement and the origins of the League of Nations, 1908-1918*.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tre Dame. Indiana, USA.

Manela, E. (2007). *The Wilsonian moment : self-determination and the international origins of anticolonial na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ott, J. R. (1913). *The Continuation Committee Conferences in Asia*, 1912-1913. New York: Continuation Committee.

Sanecki, K. C. (2006). *Protestant Christian Missions, Race and Empire: The World Missionary Conference of 1910, Edinburgh, Scotland*. Masters Disserta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Atlanta, USA.

Sluga, G. (2013). *Internationalism in the Age of Nationalism*. Pennsylvan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Stanley, B. (2006). Defining the Boundaries of Christendom: The Two Worlds of the World

Missionary Conference, 1910.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30(4). 171-176.

Stanley, B. (2018). *Christianity in the Twentieth Century: A World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Suh, C. (2023). *The Allure of Empire: American Encounters with Asians in the Age of Transpacific Expansion and Exclu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orld Missionary Conference. (1910). *Report of commission I: Carrying the Gospel to all the non-Christian world* (Vol. 1). Edinburgh: Oliphant, Anderson & Ferrier. Retrieved from https://archive.org/details/reportofcommissi01worluoft/page/412/mode/2up.

기독교 국제주의와 윤치호의 국제인식: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회를 중심으로

Christian Internationalism and Yun Chi-Ho's International Thoughts: Focusing on the 1910 Edinburgh World Missionary Conference

김 호 수 (서울대학교)

논문초록

이 글은 20세기 초반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적' 인물이었던 윤치호의 국제인식을 살펴본다. 기존 연구는 주로 조선의 국내적 혼란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윤치호의 사상을 다뤘던 반면, 이 글은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운동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통해 그를 해석한다. 특히 세계교회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국제주의와 윌슨주의에 기반한 민족자결주의 국제주의 관점에서 그의 행보를 조명하며,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를 전후한 윤치호의 심경 변화와 신앙관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그가 3.1운동을 "정치적 인플루엔자"라 부르며 친일적 행보를 선택하게 된 맥락을 새롭게 재구성한다. 윤치호에게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서구'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내밀한 사적 경험과 다양한 외부적 경험이 중첩되어 형성된 다층적 감정과 관념을 내포했다. 이 글은 국제주의의 관점을 통해 그 복잡성과 독특성을 새롭게 조명하며, 궁극적으로 국제주의적 흐름의 주변부에 위치한 한 인물의 독특한 서사에 주목하며 국제주의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주제어: 국제주의, 민족자결주의, 세계교회주의, 윤치호, 윌슨주의